



와카사정의 효노센 스키장

평창군과 와카사정이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한다!

와카사정 개요

와카사정(若桜町)은 서일본 돗토리현(鳥取県)의 동남단에 위치하며 자연이 풍요로운 '녹음과 청류의 고장'이다. 효노센(氷ノ山) 국립공원은 표고 1,510m로 '일본 200개 명산'과 '일본의 비경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너도밤나무 자연림과 고산식물 등이 많이 자라는 한편,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 일본동면쥐 등 희귀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 여름에는 등산과 캠프, 겨울에는 파우더스노를 즐길 수 있는, 서일본에서도 몇 안 되는 스키장이 있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조물도 많은데, 국가중요문화재인 '후도인 이와야도(不動院岩屋堂)'는 천연 바위 굴 안에 있는 무대 구조의 건축물로 일본의 3대 나게이레도(投入堂, 절벽의 동굴에 세워진 건축물) 불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핑크색 증기기관차(5월 이벤트 당시)



본당의 부동명왕(不動明王)도 일본의 3대 부동명왕 중 하나라고 한다.

와카사역에는 1930년 개장 당시의 모습을 간직한 목조 역사와 기관차의 방향 전환을 위한 수동식 전차대(轉車台) 등의 설비가 남아 있으며, 와카사 철도에 있는 23개 시설은 국가등록유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다. 최근에는 분홍색으로 칠한 증기기관차를 선보이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철도 팬을 비롯해 일본 전역에서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다. 또 올해로 23회를 맞이하는 서일본 눈싸움 대회, 역사 깊은 '와카사 신사(若桜神社) 대제', '와카사 벤텐(若桜弁天, 칠복신의 하나) 대제'는 이 지역 최대의 행사로서 마을 안팎의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처럼 마을의 특성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를 추

진하는 한편, 보육료 전액지원, 초·중학교의 교육을 통한 초중 일관학교(小中一貫校)의 운영 등 육아 환경의 내실을 다지는 데도 힘을 쏟아,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매력적인 마을 만들기를 민관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고 있다.

평창군과 와카사정의 우호교류협정까지의 과정

히라이 신지(平井伸治) 돛토리현 지사가 '평창군에는 용평 스키장, 와카사정에는 효노센 스키장이 있으니, 이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조언한 것이 교류의 계기가 되었다.

2008년 방문단을 결성해 강원도 및 평창군을 찾아 협의를 가진 이래, 서로 오가며 협의를 거듭해, 2010년 4월에는 직원 상호 파견 연수에 관한 협정서를, 6월에는 이 협정에



평창초등학교와 와카사학원 학생이 함께 메밀국수를 만들고 있다.



한식 요리 교실



관한 각서를 체결했으며, 7월부터 직원 상호 파견 교육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에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직원 파견 및 학교 간 교류, 양측의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교류가 깊어지고 있다.

평창군과 와카사정의 교류 내용

2010년부터 시작한 직원 상호 파견 연수로 지금까지 와카사정에서 5명의 직원을 파견했고, 또 평창군에서 3명의 직원을 받아들였다. 행정 사무를 배우고, 파견지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등 주민과 교류하고 지역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평창군에서 파견한 직원이 개최한 ‘한식 요리교실’이 호평을 받으며 김치, 비빔밥 등의 음식을 통해 와카사정 주민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의원 상호 방문 외에 와카사정에서 결성한 방문단이 평창군 대관령 눈꽃축제와 송어축제에 참가해 와카사정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부터 평창군 봉평초등학교와 와카사학원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재작년에는 봉평초등학교 학생이 와카사정을 찾아 또래 학생들과 함께 전통놀이 도구인 겐다마와 다케 톰보(대나무 잠자리), 메밀국수 만들기, 바비큐, 불꽃놀이 등을 하는 가운데, 바로 친해져서 언어의 벽을 뛰어넘는

교류를 가졌다.

민간단체로는 한국 문화에 익숙한 ‘벚꽃회(ボッコクの会)’가 결성되었는데, 평창군을 찾아 이효석 문화제에서 지역 분들과 함께 요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최하는 등 와카사정 주민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또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와카사정에서 약 20명이 방한하여 올림픽을 응원, 관전하고 평창군과 와카사정 주민의 교류회를 가질 예정으로, 와카사정의 많은 분들이 평창군의 좋은 점을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2010년 우호교류협정 체결 이후 교류를 거듭해 왔지만, 앞으로도 양국의 가교가 될 직원 상호 파견과 학생 교류 사업을 지속하며 교류의 심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시야를 지닌, 양국 친선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 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교류와 더불어 민간 교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교류의 장이 와카사정 전체로 확산되어 평창군과 와카사정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집필: 와카사정, 협력: CLAIR, Seoul)